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어릴 적 어른들은 말씀하셨다. 사람 죽고 소·대상 3년을 불문하면 그 집안과는 의결하는 것이 법도 있는 집안의 예법이 라고. 그래서 설사 경사(慶事)를 결례하더라도 애사(哀事)에 문상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이렇듯 죽은 사람 명복을 빌고, 성심을 다하여 그 유가족을 위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인간의 도리이자 예절로 예부터 전해져 내려왔다.

죽은 사람에게 대한 최소한의 예의

얼마 전, 32년 만에 1974년 인혁당계간 위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된 여덟 사람에게 대한 재심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목욕탕에 간다고 나간 사람이 중앙정보부로 끌려간 때로부터 처면 33년만의 일이다. 그들 가족에게는 세상천지에 그런 날벼락이 없었다. 그들 가족이 33년 동안 겪었던 시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자식은 빨갱이 아들이라고 동네아이들이 의하여 나무에 묶여지기 일수였다. 중앙정보부는 그 가족들까지 연행, 남편이 빨갱이라는 진술서를 강요하는가하면, 최음제까지 먹여놓고, 그것을 즐기까지 했다.

년의 삶은 글자 그대로 '눈물과 한'으로 점철된 것이었다. 32년 만에 독재권력에 의한 억울하고도 한 많은 죽음이 신원된 것이다. 민청학련도 무죄로 판시되었다. 그리고 박정희 1인을 위한 긴급조치로 학생과 시민들을 감옥으로 보낸 관사명단이 공개되었다. 그것을 보고 유력한 대통령후보의 한사람인 박근혜씨는 "죽은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그것은 나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받았다고 한다. 나는 그 보도를 보고 인간에 대한 절망 같은 것을 느꼈다. 이걸 보고 '과연 그 아버지 그 딸'이라고 하는 것인지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어도 나는 "아버지의 죄를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고 싶을

니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나올 줄 알았다. 그 가족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지언정 그것이 죽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1987년 1월 14일 11시 20분경,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이던 박종철은 남영동의 치안본부 대공본실에서 물고문을 당하다가 숨졌다. 그는 당시 지명수배 중이던 선배 박종운의 소재를 알아내려는 대공요원에 의해 강제로 그날 새벽 연행되었던 것이다. 그들 고문경관들은 박종철에게 박종운의 소재를 집요하게 추궁하였다. 그

으로써 지켜내려 했던 그 박종운이 어떠한 사람이냐 내내 궁급했다. 그럴 만큼 홀통하고 대단한 사람이거나 생각했다. 박종철의 죽음이 그렇게 세상에 떠들썩했을 때도 그가 끝내 나타나지 않는 걸 보고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애써 믿었다. 가장 최근에 알려진 바로, 그는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이요,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이라고 한다.

민주화 20주년에, 박종철 20주기가 되는 올해 초, 박종운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장경제를 지키고 북한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박종철의 정신을 올바르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걸 놓고는 어느 학생운동출신과 이념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나는 그저 그가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는 데 대한 자각적임이 그런 말을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뿐, 그논쟁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렇지만 그의 발언을 보고, '이건 아닌데' 싶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무엇이 박종철 정신이라고 애전수적인 주장을 펴기 이전에 "못난 저 때문에 박종철이 죽었습니다"고 세상에 고백하고, "박종철의 의로운 죽음에 부끄럽지 않게 자신을 다듬으며 일생을 살아가겠습니다"는 다짐을 박종철의 영혼과 국민 앞에 바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것이다. 적어도 박종철의 죽음이 다른 사람 눈에 허망하게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언론인·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정치권, 설 민심 '아전인수' 해석 지나치다

설 민심이 어느 때보다 싸늘하다. 설 연휴동안 지역구를 돌아본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원성'의 정도를 넘어 '체념' 수준이라고 전했다. "가는 곳마다 정치에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며 "언제쯤이나 먹고 살만해지겠느냐"는 하소연을 쏟아냈다. 설 연휴를 맞아 민심이 어두운 단면이다.

특히 정치권이 정치 현안에 대해 정파에 따라 민심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 열린우리당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통합신당파', 한나라당, 민주당 등 정치권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민심을 내세워 자신들의 정당성과 명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먹고 사는 데에도 지쳐 있다. 서민들의 고단한 삶은 몇몇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나라 비경제활동인구가 지난해 1천537만명으로 39개월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또 자살이 급증하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의 1.5배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다.

정치권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파' 등이 분당과 탈당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다. 한나라당 양대 대선 예비주자간에 격화되고 있는 '후보 검증' 논란도 불쌍사잡기는 마찬가지다.

정치권은 민심을 정확히 살폈다면 정파보다는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펼칠 대선을 앞두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심이 흉흉하지 않으면 이상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은 민심을 정확히 살폈다면 정파보다는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펼칠 대선을 앞두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심이 흉흉하지 않으면 이상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농업 개방 都·農 간 공감대 형성 시급하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도시민과 농민들이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산물 시장 개방은 자유무역협정(FTA) 및 도하개발 아젠다(DDA) 협상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사회이슈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 개방을 바라보는 도시와 농촌 주민 간 시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개방정책을 마련하는 데 혼선을 빚을 수 있다.

경쟁력 있는 농가 육성(53.1%)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농업인은 49.7%가 피해보상을 거론했다. 도시민은 90.4%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49.7%가 개방 피해 보상을 부담할 생각이 없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농산물 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렇다고 개방 파고에 농촌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촌을 회생시킬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농산물 시장 개방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자기 중심적으로 제각각이던 농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농업인의 70% 정도가 시장보호에 무게를 뒀다. 반면 도시인의 경우 '보호론' 비율은 60%에 불과했고 39.2%가 농산물시장 개방에 찬성했다.

특히 도시민과 농민은 농업개방 대책에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도시민은 경쟁력 있는 농가 육성(53.1%)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농업인은 49.7%가 피해보상을 거론했다. 도시민은 90.4%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49.7%가 개방 피해 보상을 부담할 생각이 없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도시민과 농민은 농업개방 대책에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도시민은

특히 도시민과 농민은 농업개방 대책에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도시민은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김종익



지난 2월 11일에 발생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수용시설 화재 참사로 많은 외국인이 죽거나 크게 다친 이후 화재 원인을 규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 화재의 원인이 설사 방화라고 결론난 사건 본질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또한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떻게 다수의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 그것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수용하는 시설에 생명줄과 같은 소방시설조차 변형된 갖가지 않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한 일상훈련은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다. 사건을 철저히 규명해서 엄중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인권현실을 잘 보여준 사례다. 따라서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

참화의 직접적인 원인이야 작은 불씨가 제공했지만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고용구조와 고용실태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냉담한 시선, 인권보호에 소극적인 국가 기구라는 큰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 제2의 참화가 또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인권 보호 소홀 부끄럽다

돌이켜보면 외국에 나가 온갖 고생을 하며 돈을 벌어들인 시절을 가까스로 벗어나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로 들어오기 시작한 게 15년 남짓에 불과하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은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의 자화상이었다는 점 때문에 참화의 아픔은 더욱 크게 느껴진다.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밀려 보호정책이 조금씩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인권이라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 보면 아직도 크게 부족하다.

방안을 찾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숨겨져나 다친 외국인들은 대부분 노동의 기회를 찾아서 한국에 온 사람들로서 비록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는 하나 통상적인 범죄자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으면 한다. 따라서 이들을 수용하는 시설도 추방절차에 따라 머무는 공간이지 통상적인 범죄자들을 구금하는 시설과는 달라야 하고 처우도 변해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수용시설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처우도 문제다. 강제추방이라는 행정명령이 집행될 때까지 대기하면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마치 수형생활을 하는 통상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지 않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시설관리 측면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짚어야 한다. 전문적으로 훈련된, 적정 규모의 관리 인력에 의해 수용

작년 말 현재 21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불법체류 상태다. 정부는 발생률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한편,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수용하고, 추방하는 일련의 과정에 인권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결합은 없었는지 깊이 살펴야 할 것이다.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제도가 크게 변화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경실련전남협의회 사무국장>

'검사비만 수천만원'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유명무실

구청이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해 실시하는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가 검사비만 받고 현장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이런 제도라면 차라리 폐지를 검토해볼 단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상 옥외광고물의 난립과 무질서는 시내 거리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느끼고 있을 정도로 자신의 상흔나 상표를 알리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어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구나 아무렇게나 난립해 때로는 행인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정도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안전도검사는 형식적이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다. 그럼에도 매년 이를 위해 들어가는 검사비만 수천만원에 이른다. 안전도검사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폐지하든지 택일해야 할 것이다. ▲최명연·광주시 서구 유충동

칼럼! 동물세상 '짚시' 같은 코요테의 삶. 영활'코요테 어글리', 국내 인기 그룹인 '코요테' 등 '코요테'는 독자들에게 익숙한 단어다. 코요테는 잉카 말이다. '마추피추'처럼 잉카의 유물들이 산비탈을 따라 잉카의 말들로 이런 신비함이 그 속에 묻어났다. 이국적인 세련미가 물씬 풍겨나기 때문에 이 말을 즐겨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코요테가 동물인지, 동물이려면 어떤 종류인지 아는 독자들은 드물다. 코요테라는 동물은 지극히 보잘 것 없는 동물에 속한다. 모양도 지지부한 야생개처럼 생겼거나 늑대처럼 사회적이기도 않고 개처럼 인간에게 친밀하지도 않다. 언뜻 보기에 말슴양이와 비슷하지만 몸집이 작으며 평원에 산다. 작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작은 쥐를 사냥해 가면서 활약을 홀로 또는 2~3마리가 헤매다니는 그런 동물이다. 이 때문에 '유유 자적'하는 동물로 비취기도 한다. 서양에서는 짚시 같은 자유 분방함 때문에 코요테를 좋아하기도 한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독자마당 Rh-형 혈액 부족 심각 공급대책 세워야. 혈액형이 Rh-O형인 사람들은 늘 불안하다. 이 Rh- 혈액은 존재 자체가 희귀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치거나 응급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네거티브(-)인 줄 모르고 있다가 수혈할 피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면 임신 여성은 태아의 적아세포증으로 유산과 사산의 아픔까지 겪을 수도 있다. Rh- 혈액형인 사람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0.25%에 불과하다고 한다. 정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광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루 빨리 이 사람들의 전체 숫자를 파악하고 이를 거주지별로 쪼개서 현황을 정리할 다음 혈액 공급, 수혈과 헌혈 지원 체계를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 ▲김계현·광주시 광산구 등림동

無等鼓. 축구경기장에서 관중들이 함께 노래 부르며 응원하는 문화는, 19세기 후반 근대적 축구경기의 규칙이 만들어지고 100년이 지난, 1960년대에 태동했다. 물론 축구의 모든 것을 만든 나라답게 영국에서 시작됐다. 그것도 20세기 최고의 팝시대를 연 그룹 비틀즈, 그들의 고향 리버풀이 발원지다. 리버풀의 응원단인 더 콕(The Kop)은 '노래하는 서포터스'로 불렸는데 이들은 경기내내 일어서서 비틀즈의 'She loves you' 등을 목청껏 불러 대며 선수들을 응원했다. 이 시기 영국에서는 또 다른 응원문화가 싹트는데 바로 축구장 폭력의 원조격인 '홀리건'의 등장이다. 1960년대 영국의 철도가 발달하면서 축구 팬들은 대규모 원정응원이 가능해졌고 따라서 홈팬들과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축구장 내외의 폭력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70년대 통일된 헤어스타일과 복장까지 갖춰 입고 경기장에 등장하는 홀리건은 당시 아예 청소년들의 문화로 변했다. 급기야 1985년, 리버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